

## 보도자료

|      |  |
|------|--|
| 보도일시 | 2018년 10월 10일(수) 10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자  |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<br>(044-550-4603, jhshim@kdi.re.kr) |
| 배포일시 | 2018년 10월 10일(수) 09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포부서 | 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                   |

## 2021년 반세기 맞는 KDI, 50주년위원회 출범

- KDI는 10월 10일 'KDI 50주년위원회' 출범식을 갖고, 5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1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
  - 오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KDI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고자 학계와 민간, 경제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을 수여
  - 50주년위원회 위원에는 김낙희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, 김수현 KAIST 부총장, 남상우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,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(전 중앙M&B 대표이사), 송대회 전 한국조세연구원장,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,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,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,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, 임영재 KDI 부원장, 조성욱 서울대 교수,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향후 3년간 활동

- 위원회는 남상우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, 김주훈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사무국장을 맡아 2021년을 기념할 연중행사를 기획하는 한편 정치·경제·사회적 변화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비전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
  
- 최정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한국경제 역사상 반세기 동안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은 많지 않다”면서 “KDI가 지난 50년간 고도성장과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. 앞으로 50년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선진국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KDI가 돼야 할 것”이라며 “KDI 50주년위원회가 미래 비전과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”고 당부

❖ **별첨. KDI 50주년위원회 출범 현장사진**